현대 일본정치의 특징

이름: 팜티늉 학번: 21944937

1.개요

일본의 정치는 일본국 헌법 에서 정한 내용에 의해 이루어진다일 당우위제 국가이며 사법과 행정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회 가정하는 법률

등의 명문화 된 법령에 의하여 행해진다 따라서 일본은 법치주의 에 기반을 둔 국가라고도 할 수 있다

천황

천황이 입헌군주제국사에 대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명목 으로라도 없다.  
많은 확립된 국가에서는 명목으로라도 거부권이나 의회화산 등을 독자 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관례에 따라 행사하지 않는데,

일본의 천황에게는 이런 권한이 아예 없다.  
천황의 모든 국사에 관한 행위는 내각의 승인을 얻어야만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관습적으로 천황 국민이 동의하는 총의에 기초하고 신망이 두텁 기에 각 정당들의 천황에 대한 도전은 금기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민주주의가 확립된 여타 입헌군주제 국가들과 달리 일본은

군주제 폐지 여론이 극히 적다. 3.군사조식

일본국 헌법조에 따라 일본에는 공식적인 군대가 없다. 물론 자위대가 군대 역할을 하나 그 기능에는 제약이 있다. 자위대는 형식적으로 군대가 아니므로 장군을 막 9료라 하는 등 일반적인 계급 체계의 이름과는 다른 이름를 쓴다. 그래도 미일안전보장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주일미군이 자위대와 함께 일본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총리가 헌법 개정으로 자위대를 군대로 개편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자위대의 정규군화, 해외 파병 등을 통한 재무장, 군사 대국화를 노리고 있다.

4.삼권  
4.1국회: 국회국회는 일본 양원제 의원이다. 국회는 국회 의사당과 신학교로 구성된 다.두가원모두병행선거제도에따라직접선출된다.국회는법을통과시키는 것

외에도 메이지 시대 헌법이 통과 된 1889 년에 처음 설립 된 정부를 운영 할 총 리를 선택할 수있는 권한을 가졌다. 현재의 의회 형태는 전후 헌법 (제 2 차 세계 대전)이 채택되었을 때 나타 났으며 헌법에 의해 국가 권력의 최고 기관으로 정의되었다. 국회 본부는 도쿄 치요다 나가 타추에 있다. 오늘날 의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자유 민주당이다

4.2행정: 일본은 47 개 현으로 나뉘어 더 작은 분자로 나뉘거나 하위 입자로 세분되며 경우에 따라 현이라고하는 세분화된다. 지방 수준에는 수도, 종교, 정부, 지방이 포함됩니다. 지방 수준은 다음을 포함함 : 대리 지방, 지구. 카운티 수준은 다음을 포함함 : 도시, 마을, 마을, 23 개 특별구이다.

5. 정당  
일본은 오랫동안 자민당이 내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자민당이 메이지 유신세력으로부터 내려오는 집단이다. 즉 자민당이 100년 넘게 일본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다.이에 파벌 정치, 세습 정치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실제로 꽤 오랫동안 어느 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민당 하의 어느 파벌에 속해 있느냐가 더중요한변수였다. 그러다보니자연히여러파벌들눈치를고루살펴야하는 총리의 권한도 약해진 편. 2009년에 와서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이룩한 것은 꽤 역사적인 일이다. 물론 모든 총리가 그랬던 것은 아니고 나카소네 야스히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총리처럼 파벌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강한권력을 가진 총리들도 존재 한다.

한때는 이런 정치적 침체를 타파한답시고 1969년을 기점으로 일본 각 대학의 운동권이 들고 일어나 전공투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문제가 발생해 오히려 국민을 더욱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심지어 전공투에 가담했던 이들조차 지금에 이르러서는 당시의 행동을 철 없는 짓으로 치부할 정도. 하지만 동시에 일본 공산당이 가장 큰 세를 확보했을때가 바로 전공투 사건 이후인 1970년대이기도 하다.

55년부터 90년대까지는 자민당과 사회당이 2:1을 차지하는 55년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자민당은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면서 점차 지지를 잃어갔다. 심지어 93년 비자민당 출신들이 연립정당을 세우면서 자민당의 과반의석을 일시적으로 저지, 잠시 야당이 되기도 했었다. 이후 만년 적대당이던 일본 사회당과의 연정까지 하면서 계속 혼미한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일본 사회당내 분열을 촉발시켰고, 55년 체제의 한 축으로서 제1야당이던 사회당은 완전히 몰락한다.) 이후 고이즈미 준이치로정권이 신자유주의 "개혁"을 바탕으로 2000년대의 장기간 동안 민심을 얻었지만 그가 물러난 이후 아베 신조,후쿠다 야스오,오덕 총리 아소 타로가 각각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임하면서 자민당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진다.

마침내 2009년 8월 30일 실시된 총선에서는 54년만에 민주당(일본)이 자민당을 뒤집으면서 "55년 체제"를 완전히 종식시켰고, 정권이 교체되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역학 구도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 중이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2010년 6월 2일 결국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토야마 유키오내각이 총사퇴하면서 다시 제2의 자민당이 되어가고 있다. 안습 간 나오토와 오자와 이치로의 파벌 갈등도 자민당 시절을 그대로 재현했다. 결국 민주당이 분당이 되고나서 치러진 2012년 중의원선거의 결과 일단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며 다시 정권이 교체되었다.

하토야마 유키오간 나오토집권 시기 에는 기존의 탈아입구 기조에서 탈미입아( 미국에서 벗어나 아시아로) 쪽으로 기울며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도 주변국을 고려하는 등 변화를 줬다. 2010년에는 일본 정부가 1965년 이후 최초로 한국에게 조선왕실의궤 등 유물을 인도하기도 하고, 식민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간 담화를 발표하는 등 아시아 국가들과 친해지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이런 행보는 민주당 그 자체가 저런 모양이라기 보다는 간 나오토의 특성일 뿐이었고(...) 간 나오토가 사실상 쫓겨나자 이명박 천황 사과 발언과 중국인들의 센카쿠 열도상륙 사건으로 탈미입아 외교 전략은 치명상을 입었다. 이전 일본 민주당 출신 총리들이 보여준 '아시안 프렌들리'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면 이러한 외교 기조가 유지되었겠지만 중국과 한국의 반일 감정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아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다시 친미보수적으로 돌아서 한국, 중국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한 때, 한국에서의 한나라당 대항하기 위해 민주, 진보계 정당들이 손잡았던 것처럼

비자민이라는 것이 있다. 지역을 제외하고 중앙정치는 자민당 대항 역사는 꽤 오래되어 그 유명한 사공공투도 여기서 나왔다. 1990년대 중반에 일명 비자민 · 비공산 연 정권도 창출하기도 하다. 지금은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사회민주당이 연대 중이지만, 국민민주당, 레이와 신센구미는 가끔씩 독자적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반면에 지역 단위에서는 수십년전부터 후보단일화와 연합공천 등이 활발했다. 주로 막강한 자민당에 대항해서 야당들이 선거연대를 하는 형태였는데, 이게 1990년대를 지나면서 정당들간의 이합집산이 심해지고, 정치적 무관심이 늘어나자 점점 정당의 존재감이 많이 약화되고, 무소속들이 판을 치는 상황이 되었다. 2010년대 들어서는지방선거에서는 정당보다는 인물 위주 선거가 대세가 되었고, 심지어 자민당과 공산당이 같은 후보를 지지하는 기묘한 사례가 나올 정도이다.

일본도 한국처럼 연령에 따라 지지하는 세력이 다르다.한국은 젊을수록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반대로 일본은 젊을수록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 진다. 하지만 고령층에 진보지지자들이 많다고 해도 고령 자민당지지층을 이기지는 못한다. 일본 고령층은 2차 세계대전중일때나 끝나고 나서 태어난 사람들로 가난을 겪었고 이들은 전쟁에 대한 무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을 뽑아도 평화헌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정치에 관심도 높지만 젊어질수록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병크를 크게 저질렀고 결국 다음 선거때 크게 패하고 현재까지도 달라진게 없기 때문에 아예 선거자체를 안하거나 여당에 뽑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일본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공천이 불가능하다. 일본의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개입을 거부하는 차원으로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래부터 무소속이 강세를 띄었던 것. 한국보단 인물론이 많이 작동한다.

6.선거  
일본의 정치 과정에는 세 가지 형태의 선거가 있다. 하원 (하원)에서 총선거는 4 년마다 (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의회 선거 ( 상원)은 회원의 절반을 선출하기 위해 3 년마다 개최되며 지방 선거는 지방 및 카운티 공무원을 위해 4 년마다 개최된다. 선거는 행정부 각 행정부에서 행정부 (MIC) 산하 특별기구 인 중앙 선거 청의 총괄 지시에 따라 선거 관리위원회가 감독한다. 일본의 선택적 선거 제도에서

투표 할 수있는 최소 연령은 2016 년 6 월에 20 세에서 18 세로 떨어졌다. 유권자는 투표를 허용하기 전에 3 개월 동안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주정부 기관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연령 요건이 있다.하원과 대부분의 지역 기관에 들어가기위한 25 세와 상원 및 지방 주지사에 들어가기위한 30 세이다. 총선거의 각 공천 예금은 1 석 선거구의 경우 300 만엔 (약 $ 27,000), 비례 대표의 경우 600 만엔 (약 $ 54,000)이다.

7.지방치자  
1947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어 한국에 비해 역사도 길고 내용도 본격적이어서 전국이 47개의 도도부현으로 나뉘어 지방 분권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 두 단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행정을 담당한다. 모든 도도부현과 시정촌에는 의사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수장(도·도·부·현 지사와 시·정·촌 장)이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과 지자체의 수장은 각각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각의 조례를 지정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이 큰 만큼 이러한 자치 입법은 한국과 비교해서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 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아직 없는 지역정당이 많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다. 다른 점은 한국은 3선, 대만은 재선까지만 가능하지만 일본은 임기 제한이 없다. 지방선거에서는 한국과 달리 정당 공천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금지된 건 아니지만, 지자체장은 거의 전부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정치인이 출마할 때도 보통 탈당을 하고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 대신 정당들의 지지 선언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중소도시인 경우에 자유민주당과 공명당과 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이 같은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고, 대도시인 경우에는 여야 대결 공산당의 구도인 경우가 많다. 지방의원은 거의 모두 공천을 받고 출마한다. 그러나 한국처럼 농어촌 지역일수록 정당보다는 인물을 보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농어촌으로 갈수록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대다수가 무소속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후보자 개인의 성향까지 알아야 누구에게 투표할지가 드러난다. 그래서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게다가 임기 제한이 없다보니 지역에서

잘 다스리면 이론적으로 죽을 때까지 가능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지역과의 유착이 심해진다는 점이다. 물론 현지사, 대도시 시장은 이 정도는 아니지만 행정구역 중 정촌에서 꽤 볼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격인 시정촌이 한국의 시군구에 비해 상당히 작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줄면서 행정 효율화를 위해 지자체간 합병이 잦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한국에 비해 잘 되었다는 일본도 한국처럼 중앙정부가 실질적인 힘이 크다. 일본의 지방의원은 공무원이 아닌 전문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보니, 지방의원 출신에서 중앙정치로 가는 인물들이 많지가 않다. 그나마 간다해도 지방 민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의원, 참의원이 낙선되고 정치적 마감 준비를 위해 시장직에 출마해서 당선된 경우가 있다.

사실 이건 일본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 본디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과 같이 중앙정부의 힘이 지방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정도로 영토가 거대하거나, 자치주 내부에서 거두는 지방세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도 자체적인 주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영토가 그 정도로 크지는 않아 중앙정부의 권력이 강한데다가 지방정부가 항상 재정부족에 시달려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보니 중앙정부의 힘이 강할수밖에 없다. 일례로 지방자치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도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전 분야를 주 정부에서 해결하고 있다. 또한, 주 방위군을 따로 둘 정도로 주 정부의 파워가 강력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어느정도 독립적인 것이 가능하다. 과거 부시의 뻘짓에 주지사들이 대놓고 반발을 하거나 오바마케어에 대해서 일부 주지사들이 불만을 표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다만, 아무리 미국이라도 연방정부의 파워는 무시할 수 없기에 연방정부가 강력하게 진행하는 것은 주 정부도 따를 수 밖에 없다.

8.특성과 문제점 1. 지역구 세습

일본 역시 이 문화가 옛날같지 않은 상황이다. 전체 의원중 50%에 달하던 세습비율이 최근에는 25% 이하로 내려갔으며 2005년 기준 51%에 달하던 자민당의

세습 비율도 현재는 의원중 1/3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야당은 우파,좌파 가릴것 없이 정치적 격변이 심해 세습의원이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 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현재의 영미수준으로 떨어질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뿐만 아니라 민진당은 아예 공천의 경우 3촌 이내 친족이 같은 선거구에서 연속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하기도 하였는데 2018년 들어서 자민당의 세습규제안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2. 파벌정치와 밀실 합의

3. 국민들의 정치에 대해 무관심  
일본은 2000년대 이후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강해 투표율이 50% 전후에 불과해 미국과 함께 주요 선진국들 중에선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그 덕분에 소선거구제의 맹점인 사표가 선진국 중에선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표(즉 콘크리트 지지층)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기에, 위의 사표론과 겹쳐져서 자민당-공명당의 일당우위체제와 우경화가 지속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그야말로 최악의 문제점으로 일본 정치를 좀먹는 근본적인 요소이며, 언급되는 여타 다른 문제점들도 여기에서 기인하는 바가 있다.

4. 사민사회의 역량 감소  
오랜 기간 자민당 일당우위 체제에서도 그나마 일본의 리버럴 진보세력을 지탱해온 지방 시민사회세력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지방자치에서도 정치적 무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유세가 한국, 유럽, 미국과 달리 국가와 중대한 상황과 직결될 수 있는 지방 선거에서 너무 조용하다. 게다가 투표율도 50%에도 아예 못 미친다. 특히 한국과 비슷하게 인물정치는 있으며, 정당 소속이 있는 것과 달리 무소속으로 나오다보니 여러 당이 지지하는 현상이 있다. 이러다보니 특히,일본 공산당소속 지방 의원은 한국의 정당정치를 배우고 싶다 말할 정도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시민사회가 자기 일을 못 하고 있거나 영향력이 없는 수준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01년(...)의 새역모 역사교과서 사태에서 채택률을 0.039%에서 방어해낸 것은 시민사회와 그 시민사회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역량이 있었기 때문. 한국 웹 만 해도 일본인들은 시사에 무지하고 언론이 주는 것만 받아먹는다는 식의 짤방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일본의 시민 역량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세계적 우익화의 물결에 일본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헌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세력화의 부진과는 별개로 시민사회의 힘은 여전히 존재한다. 물론 언급된 사례가 무려

2001년의 것이라는 점에서부터 일본 시민사회의 한계도 명확히 드러나지만... 5. 일부언른의집단화논란  
6. 정치학원문화

물론 일본이 자국 정치에 대해 비교적 무관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능해서라기 보다는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정책을 소개하고 알리는 기회도 많이 제공하며 비교적 일처리를 잘 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 역시 공청회나 지역구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면 자신들의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 충분히 소개하고 있다. 다만 그걸 제대로 안 지키는 게 문제일 뿐. 또, 일본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모두 상당히 강한 나라이기에 지역구 후원회에서 지지를 선언한 정치인을 일방적으로 뽑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구 정치인들 역시 후원회로 대표되는 이익 집단 위주로 정책을 짜기 마련이다.그리고 한국은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학원을 다니는 식으로 체계적인 교육까지는 받지 않지만, 시위를 하거나 투표를 한다던가 술자리에서 나름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주고 받다가 싸움나는 등의 크고 작은 정치적인 참여가 잦다. 반면, 일본은 원하는 자가 체계적인 정치 교육은 받을지언정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지만, 최근 고이케 유리코도쿄도지사가 자민당 당적에서 탈퇴하고 자신만의 독자적 정치세력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자신의 정치학원 및 그동안의 정치 활동에 대해 자신의 정치 철학에 동조하는 지지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정당 차원에서 정치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의 정치대학 과정은 경쟁률도 높은 편이었다.

\* The and\*